

현저한 발전상을 보인

한국간호



~ 감사장을 받고서 ~

<국립의료원간호과장> Miss Hyiline.

국립의료원은 1958년 가을에 개원하고 스칸디나비아 사절단은 글로벌 5월에 원조사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전부 450명에 달하는 스칸디나비아 의사, 간호원 기타 요원이 파견되었고 그중 200명이 간호원이었습니다.

최초의 운영계획은 고수준의 전문화된 서구식 병원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재택식 한국병원 즉 환자가족이 간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와같은 변화는 합리적인 체계 편성이 요구되었고 제도 면에도 타병원과 다른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간호원만이 아니라 다른 보조역도 필요했습니다.

1958년에 서구식 병원제도를 도입하면서 생각했던것 보다는 비교적 난관이 적었다고 봅니다. 즉 환자나 직원이 새로운 방침에 잘 적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원은 서구식이라는 것뿐이 아니라 의료사업 수준의 향상과 의료요원의 교육이 또한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척결한 혼련 과정을 발전시키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으나 지금까지 약 600명 간호원을 재교육시켰습니다.

본인은 1964년 11월에 간호과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나의 직무는 꼭 재미있었고 만족하게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간호협회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우호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항상 우리를 친밀하게 맞아주어 두번히 기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파견되었던 200여명의 간호원을 대표하여 인사드립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같이 기쁘게 일하면서 추억을 더듬으며 여러분의 발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여러분의 조직이며 간호사업의 수준을 향상하기에 온갖 노력을 하고 있

옵니다. 간호원의 척우개선을 위하여 투쟁한 간호협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줄 압니다.

간호사업 수준향상은 한국여성의 지위향상의 길이 됩니다. 봉건적 가정 생활의 근대화는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여성 특히 간호원이 이와같은 변화에 대하여 명철한 판단으로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태세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 간호사업의 장래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하고 전의하고자 합니다. 즉 한국도 잘 교육받고 경험있고 능숙한 간호원을 확보할 수 있음을. 해외에 나가 있는 많은 간호원들이 귀국하면 여러분과 같은 대열에서 보조를 낮출 것입니다. 간호원의 직업수명도 연장되고 기혼간호원 균무조건도 평리해질 것입니다.

본국 간호원의 직업수명에 비해서 한국간호원의 직업수명은 꽤 짧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일련 경험을 통해서 각분야에서 환자의 질적 간호의 필요를 익식하여 책임간호원으로써의 보람을 느끼며, 책임자



<감사장을 받는 필자>

로써의 지도성을 육성하면 책임도에 비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읍니다. 환자간호를 발전시키고 자격있는 간호원을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학생실습에 적당하게 병원시설도 확충하게 될 것입니다.

3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현저한 발전상을 보았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읍니다. 재현의 수준까지 이끌어온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과 스칸디나비아의 국제친선을 맺게된 것을 감사히 생각하며 특히 감사장을 받게될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재직중 가장 뜻깊은 일이었음을 다음 속에 간직하겠습니다.

간호교육협의회 개최

문교부과학교육과에서는 지난 5월 29일 문교부회의실에서 간호교육협의회를 개최하고 간호교사 재교육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다.

9명의 간호교육협의회원과 손옥순, 김영언교장이 참석한 이 협의회에서는 오는 7월 17일부터 7월 29일까지 여름방학을 이용 하기 강습회를 개최키로 협의하고 간호고등기술학교, 간호학교, 간호학과 교원 60명을 대상으로 66시간에 걸친 학습지도, 교육과정, 교육평가 등의 과정을 계획 중이다.